

미국 '네오콘'의 제국 기획

김 동 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1. 머리말

오늘날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데, 누가, 어떤 집단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을까? 김정일, 노무현, 혹은 한나라당, 조선일보, 혹은 북의 군부일까? 놀랍게도 조사에 의하면 오늘의 한국인들은 북한보다도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작년 이라크 전쟁을 지켜본 한국인들은 북의 핵무장은 체제유지를 위한 방어용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를 공격한 미국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에 전쟁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북 위협론'의 정치 선전 하에서 지난 50년을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변화임에 틀림없다. 반드시 친미/반미의 이데올로기를 내걸지 않아도 미국의 호전성은 상식인의 눈에도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긴장을 일으키는 미국의 정책은 누가 좌우하는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도달하게 된다. 파키스탄의 국회의원이자 정당 지도자인 임란 칸(Imran Khan)은 "나는 그렇게 정교하고 발전된 나라, 세계에서 가장 오랜 민주주의 체도를 가진 나라 중의 하나인 미국이 그토록 강력한 이익집단의 로비에 휘둘려 세계 여론을 무시한 채 전쟁에 돌입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¹⁾ 여기서 강력한 집단이란 바로 부시가 이라크전을 감행하도록 뒤에서 설득하고, 전세계를 미국 패권주의의 시험무대로 만든 미 부통령 체니와 국방장관 럼스펠드, 그리고 그들에 의해 발탁되어 조직적으로 그들의 결정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 이른바 네오콘(neocon, 신보수파)을 말한다. 이들 네오콘은 대통령 당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국제문제에 문외한이던 부시를 불과 집권 3년 동안에 두 번이나 전쟁을 벌인 전쟁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았다. 체니와 럼스펠드가 전형적인 냉전시대의 인물이고 기업가라면 네오콘은 대체로 언론, 대학, 정책연구소 등의 경력을 가진 지식인들이며, 강한 이념성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과 세계의 많은 논평가들은 이들이 바로 미국의 외교정책을 납치(hijacked)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미국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명분 삼아 그 전례를 찾기 어려운 예방공격(preventive war)까지 감행한 것은 모두 부시 행정부를 움직이는 실세, 즉 네오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네오콘과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니, 럼스펠드 등이야말로 북한의 체제 존립을 위협하여 북으로 하여금 핵 개발을 서두르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지난 3년 동안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이기도 하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동아시아와 한반도 운명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집단이다. 만약 올해 선거에서 부시가 패배한다면 이들은 뒤로 물러나겠지만, 부시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반도는 향후 5년간 또다시 이들의 손에 의해 요리될 것이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악몽이지만 그것은 현실이다. 그래서 네오콘이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살길을 찾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2. 네오콘의 노선

1)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il 3, 2003.

지난 2001년 9월 12일 9.11 테러 다음날 온 미국사회가 테러의 충격에서 아직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할 때,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은 기다렸다는 듯이 시리아, 수단, 리비아, 알제리, 이집트를 미국이 역공을 해야 할 국가라고 지목하였다. 그리고 15일 부시 대통령에게 ‘테러와의 전쟁’을 그대로 확대시켜 당장 이라크를 치고 후세인을 권좌에서 쫓아내자고 주장하여 부시 행정부를 경악케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국방부 차관인 울포위츠(Paul Wolfowitz)였다. 그리고 곧이어 20일 헤즈볼라(Hezbollah) 본부, 시리아, 이란 등에 타격을 가하자는 공개 편지가 부시에게 전달되었다. 이 모든 목소리의 주체는 네오콘이었다. 물론 그 때는 아직 9.11 테러를 일으킨 주범 혹은 배후 세력이 누군지 확인도 되지 않았으며, 이라크와 이들과의 관계는 더더욱 확인도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다. 물론 아무리 집권 이후 국제규범을 계속 파기해온 부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시점에는 이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결국 미국은 아프카니스탄을 공격해서 텔레반 정권을 갈아치우고, 결국 UN과 온 세계의 반대 속에서도 이라크를 쳐서 후세인을 권좌에서 쫓아냈다. 시간상의 문제는 있지만, 울포위츠와 그의 동료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졌으며, 오늘의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정책과 세계 질서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네오콘은 어떤 명분과 논리 하에서 이라크를 공격하자고 주장했는가? 그들은 왜 그렇게 후세인 제거와 체제전환(regime change)에 집착했는가? 91년 걸프전 당시, 그리고 1992년 이들이 작성한 국방계획지침(Defense Planning Guidance)에서 잠재적 경쟁상대의 등장을 ‘예방’ 해야 하며, 후세인을 제거하고 이라크 체제전환을 시도하자고 주장했을 때 이들의 목소리는 아직 미국 내에서 소수에 불과했고, 당시 대통령인 부시1세도 깜짝 놀라 그들의 입을 막았다. 만약 이라크 영토에서 전쟁을 벌일 경우 미국이 승리할 수는 있겠지만, 지상 전투에서 엄청난 미군 사상자가 나올 것을 감수해야하고, 후세인 추방 이후에 아랍 근본주의자들이 집권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2차 대전 참전 경력을 갖고 있을뿐더러 CIA 경력을 가진 현실정치가인 부시1세는 감히 그러한 대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런데 이들은 이후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이라크 공격을 주장하다가, 결국 2000년 부시가 집권하자 오랜 꿈을 실현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들은 새 미국의 세기를 위한 기획(PNAC:Project for New American Century) 라는 문서에서 탈냉전 이후 필요한 새로운 방위 개념을 제기하였다.²⁾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긴장 관계를 설정하기보다는 그들의 실질적인 능력에 비추어 조금이라도 독자적인 무장 가능성이 있으면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을 가해서 처음부터 그 세력의 싹을 자른다는 것이다. 그것은 트루만(Truman) 행정부 이후 냉전 하에서 적에 대해 미국이 취해온 봉쇄(containment)와 억제(deterrence)의 전략적 기초를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즉 부시 정부 등장 이후부터 제기되었던 이른바 ‘더러운 전쟁 불사론’, ‘미사일 방어계획’, ‘선제공격론’, 일방주의 외교론 등은 럽스펠드, 체니 등 강경파나 이들 네오콘이 이미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주장해온 것으로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런 실행력도 문제해결 능력도 없는 단순한 대표기관인 유엔 혹은 국제 사회 일반의 요구나 규범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다면 미국의 힘을 사용하여 미국의 안보 이해를 침해하는 국가의 정권을 과감하게 교체(regime change) 하자는 내용들이다.³⁾ 즉 적이 나를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적을 치자는 것이다. 그것은 2002년 9월에 발표된 미국의 국방계획서에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그 바탕에 깔린 정신은 바로 “미국의 힘은 옳다. 그것은 미국적이기 때문이다”라는 미국 제일주의, 군사력 제일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2) <http://www.pnac.info>; <http://newamericancentury.org>

3) Richard Perle, "Thank God for the Death of the UN: Its adjective failure gave us only anarchy, The world needs order", *The Guardian*, March 21, 2003.

이들은 탈냉전이후 새로운 적인 테러세력은 가시적이지 않을뿐더러 하나의 국가가 아니므로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아니고 따라서 국가 대 국가간의 전통적인 전쟁 개념인 봉쇄와 억제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노선 변화를 '외교정책에서의 '부시의 혁명'이라고 까지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부시 행정부 들어서서 계속 예고되었고, 그것의 종착점이 바로 이라크 '예방' 공격이었다. 이미 부시 행정부 들어서 미국은 그 이전에 맺은 모든 국제적인 협정이나 조약을 탈퇴하거나 무시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교토 기후협약(Kyoto Protocol)을 탈퇴했는데, 그것을 지키면 미국의 현재의 산업과 고용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였다. 한편 국제전범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의 설치에 반대하였는데, 그것은 세계 각처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이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Antiballistic Missile Treaty) 협정에서 탈퇴하였는데, 그것은 대테러 전쟁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 유지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포기했다. 그것은 미국이 중립적인 중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편들겠다는 신호였다.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초까지 애치슨(Acheson)이 유럽과 아시아를, 70년대 키신저(Kissenger)가 국무장관으로 남미와 아시아에 미국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면 오늘 네오콘은 바로 중동의 장악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심 멤버가 대부분 유대인인 이들 네오콘의 전략은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의 대리자인 이스라엘의 반아랍 노선과 완벽하게 보조를 같이 취하고 있다. 1996년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리투드(Likud) 정당과 합작해서 당시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에게 보내는 전략 문건을 작성했다. 이 작업은 주도한 사람이 레이건 시절 국무부 차관보이자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있는 대표적 네오콘 인사 필이었다. 부시 행정부 들어서서 미국이 '대테러 전쟁'을 선포하면서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를 공격하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살테러를 빌미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 주민을 공공연하게 공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의 대테러 전략은 곧 이스라엘 지원 전략이며, 샤론 등 극우파가 주도하는 이스라엘의 팽창주의를 격려하는 전략이다. 과연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Mahathir)이 시오니스트들이 "대리자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말한 것이 실감이 난다.⁴⁾ 그가 말하는 대리자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리고 미국과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시오니스트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벨슨은 부시 행정부의 외교노선을 '정책의 이스라엘화'라고 부르고 있으며, 워싱턴 D.C.는 은 시오니스트들의 정책 식민지가 되었다고 말한다.⁵⁾ 보수주의 이론가이자 정치가인 부캐년(Patrick J. Buchanan)은 부시 행정부의 모든 중동 정책의 준거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가의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시는 이스라엘 총리 샤론의 고객(client)이 되었다고 힐난하기도 하였다.⁶⁾ 미국과 이스라엘의 양 강경 시오니스트들의 구상은 밀려드는 인구에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확장하고 중동을 완전히 이스라엘의 통제 하에 두자는 팍스 이스라엘화(Pax Israelica)이고 그것은 곧 중동에서 '불량국가'를 체제전환시키고 굴복시킨다음 미군을 영구주둔시키자는 전략이다.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명분으로 한 사실상의 이라크 공격과 체제전환 전략은 바로 이러한 사고의 산물이다.

네오콘이 그렇게 후세인 제거에 집착한 이유는 "이라크의 점령은 중동에서 미국이 계속 머물 수(retain its presence) 있게 해 줄 것이다"라는 울포워츠의 발언에 집약되어 있다.⁷⁾ 빈 라덴의 저항이 바로 이슬람 성지인 메카가

4) *New York Times*, October 21, 2003

5) *Al Jazeera*, October 9, 2003, www.aljazeera.com

6) Ramesh Ponnuru, "Getting to the bottom of the This 'Neo' Nonsense", *National Review*, June 16, 2003

7) *The Guardian*, November 25, 2003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미군이 '주둔'한 것에 대한 반감과 굴욕감에서 주로 출발한 것이므로 그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미군이 주둔하는 것 만으로는 중동을 통제하기에는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본 것이다. 네오콘의 구상은 이라크에 친미정권을 수립한다음 미군이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하여 그곳에 주둔하고서 이라크를 확실히 미국의 군사 경제적 종속국으로 만든 다음, 그것을 근거지로 해서 이란, 시리아 등 주변의 아랍 국가를 체제전환시키려는 것이었다. 미군이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에 주둔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일은 사우디 아라비아가 민주화되어 이란처럼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미국은 겉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그렇게 외치면서도 반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근본주의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우디 아라비아 왕가와 밀월관계를 유지해 왔다. 부패한 사우디 왕가의 막대한 석유 판매대금이 미국 은행구좌로 오지 않고 유럽 은행으로 간다면 미국의 금융시장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알고 있는 미국이 후세인을 제거함으로써 사우디 아라비아를 확실히 통제하려 하는 것이다.

미군이 중동의 심장부이자 세계2위 석유 매장국가인 이라크에 친미정권을 수립한다면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전체를 통제 할 수 있고, 그것은 미국 석유회사가 중동 석유자원의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중국과 유럽을 견제하고, 나아가 세계에서 미국의 패권을 확실히 하는 길이다. 따라서 이라크 점령은 단순히 중동의 장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를 꼼짝못하게 하는 일과도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중동 석유의 장악은 그것을 싼 값에 구입해야만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나라의 생명 줄을 움켜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유럽과 일본이 그 대표적인 나라이고 석유의존도가 커져가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미국의 중동 장악은 석유에 의존하는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산소호흡기를 독점하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라크는 전술적 축이고, 사우디는 전략적 축이며, 이집트는 선물이다" 라는 펠의 말은 네오콘의 중동전략을 집약해주고 있다.⁸⁾

네오콘은 이미 1992년 제출한 국방계획안에서부터 유엔 사찰을 통한 이라크 무장해제에 목적을 두지 않고, 애초부터 체제전환에 초점을 둔 이유는 부시 행정부가 주장한 대량살상무기라는 것은 사실상 이라크 정권 그 자체임을 말해 준다. 세계 제 1, 2위의 석유 매장국가가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한 석유 거래의 기축 통화를 달러로 유지할 수 있고, 나아가 유로화의 힘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결국 네오콘이 주도한 이번의 이라크 전쟁은 보다 단기적으로는 탈냉전 이후의 유럽연합과 미국의 헤게모니 다툼,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상대로 등장하는 것을 기선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네오콘은 누구인가?

이번의 이라크 공격을 실질적으로 입안하고 주도한 국방부 차관 울포위츠(Paul Wolfowitz)과 미 행정부 내외부 각 기관, 언론기관, 연구소, 로비회사, 정당 등에 소속된 사람들, 즉 크리스톨(William Kristol), 펠(Richard Perle), 퍼스(Douglas Feith) 볼튼(John Bolton), 캐간(Robert Kagan), 아브람스(Elliot Abrams), 리든(Michael Leeden), 리비(Lewis Libby), 울시(James Woolsey), 바네트(Richard Bennett),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깅그리치(Newt Gingrich) 등을 우리는 네오콘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하나의 단일 조직을 형성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통로를 통해 미국의 장기적인 국익을 위해 후세인을 제거하고 이라크의 체제변화(regime change)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고, 부시가 집권하자 국방차관, 국방위 위원장, 부통령 보좌관 등 권력의 중심으로 진출하여 자신들이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계획을 드디어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이다.

신보수파 즉 네오콘은 이미 90년 초부터 친이스라엘 노선 유지, 후세인 제거를 위해 상당한 공감대를 축적해 왔다.

8) Sherif hetata, "World Domination, Inc", *Al-AhramWeekly*, November 29-Dec. 3, 2003

그들은 이미 걸프전 당시 곧바로 후세인을 제거하고 이라크를 체제전환을 하지 못한 점을 비판한바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이들의 집단 행동은 앞서 언급한 새 미국의 세기를 위한 기획이었다. 한편 이들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9년 이라크 망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라크 해방 법 (Iraq Liberation Act)를 통과시켰고, 곧 이라크 망명자들에게 CIA 자금을 지원하도록 힘을 행사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시오니스트(Zionist)이며, Ivy 리그 출신이나 뉴욕을 중심으로 문필활동을 해온 사회과학자, 정책분석가, 언론인들이다. 퍼스는 레이건 시절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을 지내는등 행정부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시오니스트조직(ZOA:Zionist Organization in America)의 중심활동가이다. 크리스톨은 현재 네오콘의 이론적 대변자인 위클리스탠다드(Weekly Standard)의 편집자이며, 레이건 시절 행정부에 몸담았었다. 필은 현 부시 행정부의 국방정책 위원회(Defense Policy Board) 의장이며 레이건 부시 시절 국방부에 몸담았던 가장 강경한 시오니스트이다. 볼튼은 현재 네오콘의 싱크탱크인 미기업연구소(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부대표이자 유대인안보문제연구소(Jewis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의 자문위원회 위원이다. 이들은 네오콘의 이론적 정책적 입장을 대변하는 미기업연구소(AEI), 새 미국의 세기를 위한 기획(PNAC: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fation) 등 각종 정책연구소에 중복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코멘터리(Commentary), 위클리스탠다드(Weekly Standard),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뉴 리퍼블릭(New Republic),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 등의 보수적인 매체에 편집인 혹은 주요 기고자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내의 유대인 기업과 그리고 네탄야후, 샤론 등 극우파 이스라엘 정치가, 언론인들과 접촉을 갖고서 오늘의 친이스라엘, 반아랍 중동정책에 대한 교감을 형성해 왔다

원래 울포위츠, 필, 울시는 시카고 대학의 보수적 사회과학자인 울스테터(Albert Wohlstetter)의 제자이며, 울스테터는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를 매개로 해서 이들을 국방부, 보수적 정치가들에게 소개하였다. 이들 네오콘이 레이건 행정부 이후 하나의 세를 형성하게 된 것은 보수적인 싱크 탱크인 AEI의 정책 세미나였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린스펠드, 체니 등은 이라크 망명 기업가이자 이라크 의회(Iraqi National Congress) 의장을 맡고 있던 찰라비(Ahmad Chalabi)를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작년의 이라크 공격은 찰라비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되었고, 린스펠드는 그를 이라크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대표로 발탁했다. 한편 네오콘의 사상적 대부인 어빙 크리스톨(Irving Kristol)의 아들이자 네오콘의 왕자로 불리워지는 윌리엄 크스리톨은 그는 1997년 PNAC를 설립해서 공화당 강경파인 린스펠드, 체니와 이들 네오콘들과 결속시켰다. 이들 네오콘 간에는 단순한 이념적 동질성 이상의 혈연적 정서적 공통분모가 있으며, 각종 인연으로 서로 이리 저리 얽혀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역대 가장 유명한 국방부 차관이라고 지칭되는 울포위츠라 볼 수 있다. '부시 독트린'을 '울포위츠 독트린'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부시의 전쟁 정책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고, 비상한 두뇌와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80년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보좌관, 인도네시아 대사를 역임하는 등 이미 미국의 국방 안보 분야에서 많은 경력을 쌓았고, 클린턴 집권 후에는 물러나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쳤다. 뛰어난 수학자였던 그의 부친과 그의 가족은 폴란드에서 나찌의 반유대주의 공세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그의 가족 중 여러명이 대량학살(Holocaust)에서 희생되었다고 한다. 그는 원래 학부에서 수학을 전공했으나 시카고 대학의 대학원에서 국제정치로 전공을 바꾸었으며, 시카고 대학에서 바로 오늘날 네오콘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 울스테터를 만났다. 스트라우스는 망명 유대인이며, 홉스와 마키야벨리 사상에 신봉하는 반근대, 반자유주의, 반대중 민주주의, 친엘리트, 친나치적 입장을 가진 정치사상가였다.⁹⁾ 한편 울스테터는 공산주의에 대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핵 억제 연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핵전

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강경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동아시아와 인연을 맺고서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의 붕괴시 미국측 책임자로서 있었으며, 한국의 전두환 정권의 붕괴,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의 정치적 진통을 지켜보았다. 여기서 그는 민주주의는 평화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미국은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라도 독재자를 제거해야 한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세계는 악의 세력이 준동하는 위험한 지역이며, 미국은 그러한 세상에서 악을 제거해야 할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¹⁰⁾ 그는 과거의 과시즘, 공산주의,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테러는 자유 민주주의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일련의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히틀러, 스탈린, 김정일, 후세인으로 연결되는 전체주의 독재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압력만으로는 안되며, 오직 미국의 힘을 발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히틀러의 유태인 대량학살의 경우도 미국이 제대로 개입하지 않아서 희생을 크게 늘였다고 보는데, 미국이 또 다시 그런 우유부단한 자세를 갖고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은 일에는 무력사용을 불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어쨌든 주변사람들로부터 그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반대를 하더라도 그가 믿는 것은 옳은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¹¹⁾, 혹은 “방법에 있어서는 일종의 혁명가”로 평가받고 있다.¹¹⁾ 미 민주당의 외교위원회의 한 의원은 “그는 회의 석상에서 언제나 가장 우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모든 모임에서 그보다 더 우익인 사람은 없었다”고 지적한다.

4. 보수주의와 신보수주의

네오콘은 구 자유주의자, 구 트로츠키스트들 중에서 전향하여 미국 애국주의 노선을 택한 사람들인데, 그것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현재 이들의 이론적 대변지 위클리 스탠다드(Weekly Standard)의 편집자인 윌리엄 크리스톨의 부친인 어빙 크리스톨(Irving kristol)부터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극좌파 지식인이었다가 우파로 노선을 바꾼 사람인데, 1960년대 베트남 전 반대운동 와중에 동료 좌파 전향자인 다니엘 벨(Daniel Bell) 과 함께 Public Interest를 그리고 호로비츠(David Horowitz), 번햄(James Burnham), 메이어(Frank Mayer) 등과 함께 National Review라는 잡지를 창간하여 베트남전 반대운동과 신좌파의 등장을 비판했던 사람들이었다.¹²⁾ 이들은 냉전체제 하에서 소련과 대결해야 하는 사정을 무시한 미국 자유주의의 위험성과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현실주의적이고 중도주의적인 노선을 걷는 구 보수파와 자신을 구별하여 ‘신보수파’라 명명하였다.¹³⁾

미국 역사에서 1950년대 초반 매카시(McCarthy) 광풍에 협력하여 과거의 동료들을 밀고하고 증언한 상당수의 ‘반공투사’들이 구 좌파 운동가들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냉전체제 형성기에 학생운동, 노동운동 혹은 사회주의 정치의 경력을 가진 지식인들이 ‘현실을 깨닫고’ 반대편 극으로 가서 극우적인 진영의 일원이 된 것은 미국만의 일은

9) Jim Lobe, "Leo Strauss's Philosophy of Deception", *Alternet*, May 19, 2003(www.alternet.org)

10) Thomas E. Ricks, "Holding Their Ground : As Critics Zero in, Paul Wolfowitz in Unflinching on Iraq Policy", *Washingtonpost*, December 23, 2003

11) "For Wolfowitz, a Vision May be Realized", *Washingtonpost*, April 7, 2003

12) 뉴욕 타임스에서 이렇게 분류하자, 벨은 자신이 결코 신보수주의자인 적이 없으며, 전쟁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James Atlas, "What It Takes to be a Neo-neoconservative", *New York Times*, October 19, 2003

13) *New York Times*, October 19, 2003

아니지만, 역사학자 홉스봄(Hobsbawm)이 지적한 것처럼 미국좌파의 전향은 다른 어떤 유럽국가보다도 좀 요란스러운 점이 있었다.¹⁴⁾ 미국 역사에서 보자면 1960년 말 자유주의, 트로츠키파의 전향은 제2차 대전 중 ‘빨갱이’ 색출 작업 하에서의 전향, 1950년대 매카시즘 하의 전향에 이은 세 번째의 대량 전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73년의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베트남 공산화로 인한 위기의식, 1980년 이란혁명 시기 카터 행정부의 우유부단함 등에 불안을 느낀 미국 내 자유주의, 좌파들이 대거 우익 민족주의자로 전향한 것이다. 1980년 레이건의 집권은 미국 내 자유주의자들의 위기의식과 우파 민족주의의 호소력이 집약된 것이다. 따라서 네오콘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중요한 자리에 발탁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네오콘은 ‘전통적 보수주의’자들과 자신을 구별한다. 미국 내에서 현재 보수주의로 분류될 수 있는 세력이 있는지 의심스럽지만 구태여 거론하라면, American Conservative 잡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통적 보수주의자 부캐년 같은 사람들, 그리고 냉전적인 현실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키신저 등 구냉전세력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은 1950년대 이후 미국정치에서는 거의 사라졌는데, 미국의 반공 팽창주의를 반대하고 베트남 침공을 반대했던 풀브라이트(Fulbright) 상원의원, 냉전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것으로 유명한 언론인 리프만(Lippman) 등이 이러한 보수주의 인물들이다. 이들은 19세기적 자유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토크빌(Tocqueville) 사상의 신봉자라 볼 수 있는데, 국제정치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미국의 외국 문제 개입을 반대하는 고립주의(isolationism)라 볼 수 있다. 이들은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과 국가이익을 소중히 여기되, 무모하게 팽창정책을 펴거나 전쟁을 벌이지 말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들은 이라크 전쟁도 반대하였다. 한편 키신저 같은 전형적인 냉전형 인물은 ‘현실주의적 보수주의’자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이라크 공격을 옹호하였다. 그러나 이들 모든 유형의 보수주의자들은 모두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¹⁵⁾

구 보수 즉 미국 외교정책의 주류라 할 수 있는 현실주의적 냉전주의자들과 네오콘과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가 공산주의 혹은 미국의 적에 대한 봉쇄와 억제를 우선시하는 다소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 반해 이들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적을 없애고 미국식 자유주의를 이식해야 한다고 보는 점에 있다. 앞서 언급한 네오콘의 철학적 스승인 스트라우스(Leo Strauss)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독일에서 히틀러의 등장을 가져왔다고 보면서, 자유주의 이상의 관철을 위해서는 ‘고상한 거짓말’(noble lies)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군사적 민족주의적인 국가가 필요하며, 만약 적을 찾을 수 없다면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¹⁶⁾ 이들은 미국을 일종의 자유주의 혁명의 거점으로 보고 자애로운 헤게몬(benovolent global hegemon)으로서 역할을 포기하지 말아야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절대 우회, 정부의 비밀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말은 자유주의 운운하지만 방법적으로는 대단히 반자유주의적이다.

한편 이들과 냉전적 현실주의자들과의 또 다른 차이점은 전자가 UN, 혹은 유럽과의 긴밀한 연대를 강조한데 비해서 네오콘은 유럽이 미국의 노선에 따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유럽을 무시하고라도 미국의 단독 행동을 감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 있다. 부통령 체니는 “20세기에 필요했던 전략을 지금의 위협 상황에서 그대로 고수할 수는 없다, ‘유엔은 치명적 무기로 무장한 21세기의 불량국가(rogue state) 직면한 도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사실상 국

14) Eric Hobsbawm, *Interesting Times: A Twentieth-Century Life*, London: Allen Lane, The penguin Books, 2002, p130

15) www.csmonitor.com/specials/neo-con

16) “Intellectual Basis of Neoconservatism”, (<http://www.eurolegal.org/usneocon.htm>)

제기구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네오콘식의 사고를 드러내준다.¹⁷⁾ 앞에서 거론한 볼튼 같은 인물은 그전부터 반유엔(anti-UN), 반국제전범재판소(anti-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노선을 견지했는데, 유엔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에게 미국은 전범재판소에서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즉 이들은 자체의 군사력이 없고 문제해결 능력이 없는 유엔은 국제질서 유지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직 미국만이 문제해결자라고 본다.

한편 이들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현실주의자들과는 달리 국가이익 뿐만 아니라 도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고 있다. 네오콘의 이론가 중의 하나인 월 스트리트 저널의 부트(Max Boot)는 네오콘은 "윌슨식의 이상주의와 키신지식의 현실주의의 결합, 혹은 강경한 윌슨주의(hard Wilsonianism)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¹⁸⁾ 그것은 이들의 실제 노선이 이전의 보수주의자들에 비해 더 도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군사 외교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단지 미국의 국익 뿐 아니라 국제사회 질서유지자로서의 미국의 도덕적 책임, 자유주의의 최종 승리자로서 '미국의 도덕적 우위'를 확고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세계를 정복한 사상'인 자유, 평화, 민주주의의는 이제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강요해야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¹⁹⁾

따라서 이들은 공산주의 혹은 테러 세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던 존슨, 카터, 클린턴 등 민주당 대통령들의 외교 정책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고, 이들은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했던 세계화(globalization) 전략에 대해서도 비판적인데, 그 이유는 자유무역, 시장개방 등 시장이라는 수단을 통한 세계화로서는 다가오는 세계에서 미국의 입지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예를들면 크리스톨의 경우 중국의 소수종교(기독교) 탄압을 비판해온 기독교 근본주의자(Christian Fundamentalism)들과 장단을 맞추어 중국과의 자유 무역은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증진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중국을 확실하게 굴복시키지 않으면 장차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였다.²⁰⁾ 부시 정부 들어서 미국이 중국을 비난하고, 미국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한국 등 외국인 철강 수입에서 관세를 물리는 등 미국이익 우선,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한 것도 다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들의 노선을 곰곰이 뜯어보면 말로는 자유를 외치지만 영.미의 자유주의 전통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파시즘, 전체주의, 그리고 레닌주의에 가깝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일각에서 울포위츠를 비롯한 네오콘을 향해서 "이들은 보수파가 아니라, 사실상 혁명파, 급진파다"라고 공격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²¹⁾ 즉 이들의 노선은 민주적 토론을 비생산적인 잡담으로 생각했던 레닌,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를 단순하게 파악하고 영구혁명을 주장했던 트로츠키와 오히려 유사하다. 한국에서도 그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지만, 좌익급진주의자들은 과거 그들이 갖고 있었던 관념적 과격성, 이상주의, 목적 지상주의, 선악 이분법적 정서구조의 틀을 유지한 채 단지 그 내용만 바꾸어 극우파로 변신하는 경우가 있다. 1960, 70년대 활동했던 선배 네오콘들은 그들이 젊은 시절에 견지했던 사회주의라는 종교 대신에 애국심, 반공주의라는 종교를 그 자리에 앉혔다. 그러나 극좌파가 가진 전체주의적인 요소는 그대로 견지하였는데, 미국의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옳기 때문에 무리한 방법을 통해서도 상대방에게 강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7) Ronald Brownstein, "Washington on Brink of a New Era", *Los Angeles Times*, March 18, 2003

18) Max Boot, "What the Heck is a Neo-con", *Wall Street Journal*, December 30, 2002

19) Michael Mandelbaum, *The Ideas that Conquered the World—Peace, Democracy and Free Marke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public Affairs, 2002

20) John O'Sullivan, "A Yellow Peril? No : Excesses of the new anti-China lobby", *National Review*, May 1, 2000

21) Will Hutton, "There's a Revolution Going On in the US"(October 23. www.aljazeera.info)

네오콘이 추구하는 사상과 정책적 노선은 시장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 애국주의, 미국 절대우월주의, 반공산주의, 반 이슬람, 인종주의 등이기 때문에 사실상 급진보수 혹은 반동적이며, 자신들이 추구하는 미국적 가치에 대한 종교적 확신을 갖고 있으며, 흡스적인 세계관에 입각해서 힘의 정치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을뿐더러, 정치적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대화와 설득, 타협의 방법을 비웃으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가시적 적을 제거하고 잠재적 적을 굴복시키려 하기 때문에 급진적이고 전체주의적이다.

역사 속에서 이들과 가장 근접해있는 정치노선을 들라면 당연히 파시즘이다. 국가지상주의, 군사주의, 애국주의, 그리고 노골적인 친자본 노선을 견지한다는 점, 그리고 종교과 국가를 일치시키려는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과 손을 잡고 있으며, 이슬람을 단순히 문화적 배타심의 차원에서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인종주의(백인 우월주의)적으로 멸시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분명히 과거 30년대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적자이다. 그래서 ‘네오콘’이라는 용어는 사실 그들의 파시즘적 성격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파시즘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대중을 조종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과거의 파시즘과 유사하게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의 민간인 학살, 문화 파괴, 불법 점령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리고 파시즘이 그러했듯이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힘을 통한 질서다. 이들의 사상적 스승인 스트라우스는 파시즘 사상가인 니체, 하이데거, 슈미트(Schmitt)를 찬양하는 파시스트이며, 현재 네오콘으로 분류되는 리덴(Leeden)은 미국내에서 가장 공공연한 파시스트다.

이들 대다수는 기본적으로 기업가, 정치가처럼 실용적 노선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실제 전쟁의 경험을 가진 군인들과는 거리가 먼 책상물림의 지식인들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과격함을 보고서 ‘치킨매파’(chickenhawks)라고 비웃기도 하는데, 즉 세상 물정 모르면서 관념적으로만 용감한 동키호테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²²⁾ 이들은 실제 전쟁터에 가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고, 전쟁이 가져오는 비극과 비참함에 대해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다. 물론 린스펠드나 체니 등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는 사실 전쟁의 문외한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의 군 원로들은 이들 네오콘의 무모한 전쟁 놀음에 대해 비판적이다. 즉 부시행정부가 이라크 전쟁 후 복구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것도 이들의 무지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들은 과거의 보수주의자들과 달리 전쟁을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직접 연관시키지는 않는다. 실제로 울포위츠는 “석유얻으려고 이라크 침략한 것이 아닌가”라는 공격을 받으면 “이라크의 석유자원이나 미국의 경제적 이해에는 전혀 관심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의 답변은 일면 타당하다. 그의 이상과 목표는 석유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의 급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대체로 유대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울포위츠의 경우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지만 나치 학살로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유대인 대량학살 시 가족 중 9명을 잃은 키신저가 가장 강경한 반공주의자가 되어, 칠레 아옌테 정권의 붕괴 등 1970년대 닉슨 행정부가 벌인 ‘더러운 전쟁’의 주역이 된 것과 유사하다. 원래 자신이 살던 곳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특유의 공격성과 보상심리, 새로운 정착지에 대한 애정과 집착을 갖는 법이다. 자의 건 타의 건 자신의 고향에서 떠나 이주한 사람들은 원래 자신이 살던 곳보다 이민 온 곳이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정당화해야 하고 스스로를 설득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특히 미국으로 건너온 나치 학살의 피해자들은 이민자로서 불안감과 자기 정당화의 필요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학살 피해자로서의 심리를 이중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살 터를 제공해준 미국에 애정과 자신을 그러한 처지로 만든 ‘넓은 유럽’에 대한 거부감을 더 강하게 갖는 경향이 있다. 한국전쟁 전후 ‘서북청년단’ 등 월남출신들이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해 갖는 비이성적인 증오감과 유사하다. 이스라엘 국민과 미국 내 우파 시오니스트들 모두 자신이 학살의 피해자라는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불법점령

22) “James P. Pinkerton, "The Iraq War, or America Betrayed", (www. newsday.com)

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반유대주의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미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과 전세계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1967년 6일 전쟁 이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확실히 돌변했다. 20세기 발생한 학살사건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가해자들은 언제나 상대방의 힘을 과장하고, 자신이 여전히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다. 구유고의 세르비아가 수백년 전에 입은 피해의식을 갖고서 보스니아 사람들을 학살한 것도 같은 차원의 것이다. 자신은 언제나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자신이 저지르는 폭력과 학살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오늘 네오콘의 핵심 구성원인 유대인의 심리도 이와 유사하다. 오늘날 이렇게 비이성적일 정도로 자신에 대한 비판을 반유대주의라고 공격하면서 후세인 제거를 집요하게 추구해 왔으며,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그들의 심리 속에는 이러한 역사적 기억이 깔려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5. 제국의 기획자로서 네오콘

그런데 네오콘의 사고와 전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다. 윌포워즈 자신은 윌슨, 트루만, 트루만 시절 유명한 국무장관이자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국무장관 중의 하나인 애치슨(Acheson)의 추종자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모로 이들은 냉전의 지식들이다. 애치슨은 냉전전략을 선과 악의 투쟁으로 보았는데, 이들 역시 '대테러 전쟁'에서 그러한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다. 그들은 소련 동구 사회주의가 무너진 후의 불확실한 세계 정세를 애치슨이 제2차 대전 종전후의 상황을 표현했던 "창조의 순간"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았다. 크리스틀은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으며, 그것을 움켜잡아야 한다, 지금은 새로운 창조의 시점이다"라고 대단히 흥분한 논조로 역설하였다.²³⁾

케간(Kegan)도 위클리 스탠다드에서 애치슨을 역대 최고의 국무장관이라고 치켜세우면서 그의 노선이 어떻게 냉전의 승리자가 되었는지 밝히고 있다. 애치슨은 비타협적 반공주의자이자,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극우 매카시로부터는 공산주의라는 공격을 받기는 했지만, 고립주의자였던 리프만으로부터는 자유시민을 보호해준다는 명분 하에 팽창주의를 지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²⁴⁾ 애치슨이 오늘날의 네오콘 처럼 선제공격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네오콘의 근본주의적 정서는 많은 점에서 애치슨을 닮았다. 애치슨은 공산주의라는 바이러스는 그 아무리 미미한 것이라고 그냥두면 슬며시 퍼져 온 몸을 씹어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조기에 확실히 제거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보았다. 사실 베트남 전쟁 당시 유명해진 도미노 이론의 원조는 애치슨이다. 그는 트루만 독트린은 전세계 어느 곳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전세계 모든 지역을 잠재적 위험지역으로 보고 미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47년 아직 소련의 위협에 대해 미국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때 그리스 내전에 개입하자고 요구한 당사자가 애치슨이요, 1950년 6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트루만이 신속하게 한국전 개입결정을 하도록 가장 적극적으로 그를 부추킨 것도 애치슨이었다. 그리고 이후 일선에 물러난 뒤에도 존슨이 베트남전에 개입하는데 원로로서 자문을 한 사람도 애치슨이다. 트루만-애치슨 노선은 미국 외교노선의 텍스트이다. 왜냐하면 케네디나 존슨은 언제나 트루만, 애치슨이 어떻게 했는가를 참고하면서 정책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흔히 많은 비판가들은 이들의 노선이 공산주의의 위협을 과대평가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공산주의 위협은 미국의 패권구축을 위한 의도적 과장일 가능성이 높다.

23) *Los Angeles Times*, March, 18, 2003

24) Robert Kegan, "How Dean Acheson Won the Cold War: Statesmanship, Morality, and Foreign Policy", *The Weekly Standard*, September 14, 1998.

에치슨이 냉전전략을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처럼 이들 역시 ‘대테러 전쟁’을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에치슨이 다른 동료들의 도움을 얻어 작성한 전략문건인 NSC-68에는 미국의 결정적 이해가 달린 지역이 어딘지 밝히지 않았다. 이것은 북한을 오관하게 한 결정적인 함정인데, 전세계 모든 곳에 봉쇄의 그물을 치고서 문제가 생길 경우 역공을 하는 방법만 명시한 것이다. 사실 트루만 독트린은 그리스, 터키에 미국이 개입하기 위한 정치 전략의 측면도 있었다. 에치슨이 사용한 선과 악의 이분법, 도덕주의 담론이 정치 레토릭인 측면도 있듯이 ‘대테러 전쟁’도 사실 레토릭이라 볼 수 있다. 사실 일반인들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최고의 전략가들만큼 국가의 장단기 비전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정쟁에 대해 잘 모르고, 자신의 일상의 이해관계에 묻혀 있기 때문에 외교라인에서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의 판단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들은 알고 있다. 에치슨이 중국 공산화, 북한의 남침과 한국 전쟁을 미국의 패권과 냉전전략 구축의 기회로 활용하였듯이 네오콘은 바로 9.11 테러를 미국의 새로운 패권 구축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였다.

냉전후 미국 역사를 보면 비록 잠복해 있기는 했으나 이들과처럼 잠재적 적을 선제공격하거나 완전히 제압해서 도전할 수 없도록 기를 꺾이는 주장을 한 극우세력이 언제나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냉전초기 미국의 힘이 압도적 우위에 있을 때, 공산주의 국가의 핵이나 대량살상 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핵전쟁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미국 외교가에서는 끈질기게 잠복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전략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중국의 개입 징후가 있을 때 중국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묶어두기 위해 핵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 한국전쟁의 영웅 메카서(McCarthy)의 후계자들이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번 네오콘의 세계전략과 이라크 공격은 미국 지배층 내의 국제주의적 극우파의 공격성, 이분법적 사고가 전면에 부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한전으로서 냉전의 한계를 탈피하여 미국의 힘을 마음껏 사용하고 잠재적 경쟁자를 완전히 굴복시키자는 욕구의 다름 아니다.

결국 네오콘의 ‘대 테러 전쟁’ 노선은 과거의 ‘반공 십자군’ 전쟁 노선에 이은 미국의 제국건설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냉전 전략가들이 그러했듯이 이 ‘대 테러전쟁’ 노선은 미국 국내용이자 동시에 국제용이다. 영구 군비확산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와 미국 대자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시장확대, 자원 확보, 그리고 달러화 가치 유지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치슨 등 냉전시절의 현실주의적인 노선과 네오콘과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가 군사력을 사용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현실주의자인데 반대 이들은 훨씬 무모하고 급진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에치슨은 유럽과의 확고한 동맹을 구축하여 소련의 위협을 적당하게 관리하되 상호파괴로 나아갈 전면전은 피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려 했는데, 이들은 이제 유럽과의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법상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우선 미국 내부에서 보자면 과거와 달리 자유주의자들의 견제력이 훨씬 약해졌으며, 국제적으로는 과거 제2차 대전 이후의 시점과 달리 소련이 패망하고 미국의 단일 패권이 확립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6. 네오콘의 위선과 한계

네오콘이 추진해온 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미국에도 좋을뿐더러, 후세인의 ‘비민주적인’ 독재정권 하의 백성들에게도 좋다는 생각은 미국 역사 속에 깊은 뿌리를 갖고 있으며,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 로마에 이르는 긴 제국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의 적은 테러세력만이 아니라 테러세력을 품어주는 국가, 혹은 장차 테러를 벌일 위험성이 있는 국가까지 포함한다는 이들의 전략은 사실 과거 로마가 취해왔던 제국건설 노선의 반복이다. 로마 제국은 언제나 위험한 적을 갖고 있었으며, 적이 없을 경우는 만들어서라도 전쟁을 벌여왔다. 물론 그것은 언제나 문명

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된 군사주의와 팽창주의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만, 언제나 기만적이고 위선적이다. 미국은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보한다는 이름아래 노골적으로 자신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이중성을 보여 왔다. 냉전시절 미국의 노선이 그러했지만, 오늘의 네오콘 역시 마음 속 깊은 곳에는 미국의 이익 - 그들의 말을 빌리면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의 자유와 평화의 영구적 보장- 위해서는 수만, 수십만의 '열등 민족'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는 것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있다. 따라서 네오콘의 노선은 전형적인 미국팽창주의, 제국건설 노선의 논리와 연결되어 있다.

예를들면 네오콘의 대표주자인 울포위츠가 자신이 주장하듯이 과연 그가 이라크 사람들이나 제3세계 사람들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레이건 시절 홀스부르크(Holbrooke)의 뒤를 이어 한국의 전두환 정권,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반대파 살해와 인권탄압을 미국 '국익'의 입장에서 묵인 지지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 군부는 모든 면에서 미국이 '자식'이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 군부가 1975년 이후 그가 재임하던 시기, 그리고 1999년까지 미국이 제공해준 무기로 동티모르 학살에 앞장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인도네시아 군부, 비밀 요원들, 그리고 미국 투자 회사의 기업주들과 함께 "US-Indonesia society" 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이끌었으며, Hasbro Inc 와 같은 주요 인도네시아 투자 회사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미국 기업의 입장에 서서 일한 바 있다. 더구나 현재 인도네시아 군부와 경찰은 수마트라, 파푸아 지역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주민을 학살하는 등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데, 그는 부시 행정부의 막강한 실세로서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회교국가에서 '대테러 전쟁'을 벌인다는 명목하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군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는 1983년 전두환 정권 시절 한국도 방문하였다. 그의 임무는 전두환 정권에게 한국의 헌법을 존중하고 한 임기만 마치고 사임하도록 조용히 권고하는 것이었다고 회고한 적이 있는데, 1987년 전두환이 물러난 것이 한국의 인권상황 증진에 가장 중요했다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결국 그는 군부정권이 안정적인 때는 군부정권을 지지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고, 군부정권이 대중의 저항에 직면해 불안해지면 그 정권을 무조건 지지하기보다는 다른 친미세력이 집권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냉전 외교노선의 집행자로서 역할을 한 것이다. 다른 네오콘이 그러하지만, 울포위츠의 경력 역시 냉전정책의 교과서적인 사례이고,²⁵⁾ 오늘 그의 노선은 냉전시절의 실용주의 노선보다도 더욱 위험하다.

또 다른 네오콘 인물인 아브람스는 레이건 시절 엘살바도르의 우익 준군사조직, 즉 우익 테러조직을 지원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후 엘살바도르에서 발생했던 수만명의 학살사건에 대한 UN 진실위원회가 조직되었을 때 전쟁 범죄 혐의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수년전 베네수엘라의 우익 군부 쿠데타 음모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키신저가 칠레 피노체트 정권의 등장과 이후의 학살사건에 개입하여 국제사회에서 전범으로 지목되는 것처럼 레이건 행정부 시절 국방, 안보 분야에 몸담았던 네오콘들은 미국이 남미에서 벌인 '더러운 전쟁'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들의 위선과 한계는 지난번의 아프카니스탄 전쟁, 그리고 이번의 이라크 전쟁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네오콘은 미국이 텔레반 정권을 추방하면 마살플랜에 버금가는 경제지원을 해서 국가건설(nation-building)을 하겠다고 떠벌렸으나, 실제 책정된 예산은 극히 미미하고, 아프카니스탄은 옛날과 다름없이 혼란과 실업, 마약밀매가 판을 치고 있으며, 계속되는 미군의 무차별 공습으로 산악지역의 무고한 주민들이 계속 목숨을 잃고 있다. 이라크의 경

25) Tim Shorrocks, "Paul Wolfowitz: A Man to keep a close eye on", Asia Times, March 21, 2001.

우에도 후세인이 체포되었다고 하나 사실상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미 CIA 당국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후세인이 9.11 테러와 무관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네오콘이 주도하고 기획한 미국의 의도가 미국의 안보, 즉 테러세력 제거와는 무관한 미국의 국익 추구의 일환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향후 네오콘의 중동전략과 제국 기획의 성패는 일차적으로는 이라크에서 성공적인 친미정권이 수립되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해방군으로 반길 것으로 예상했던 이라크 사람들의 반미감정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후세인 치하에서 탄압받던 시아파가 정권의 조속한 이양을 촉구하고 있어서 미국의 친미정권 이식은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물러날 경우 이라크는 구유고 지역에 버금가는 인종갈등과 학살이 발생할 위험성도 있다. 더 큰 위험은 이라크와 중동의 젊은이들이 미국이 선전하는 ‘해방’의 위선과 이중성을 쉽게 파악했다는 점이다.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가 비공식적으로 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열화우라늄탄 등으로 인한 민간인 부상자나 피해자가 수 만, 수십만을 넘어설 텐데, 전쟁의 상처, 국토의 파괴와 만연한 실업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라크가 미군의 주둔을 반길리 없고, 미국이 어떤 법적인 권한도 없는 과도통치위원회의 입을 통해서 이라크 석유회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영 기업을 모두 해외자본에 매각하는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될 이라크 사람들이 더욱 더 반미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럽국가와의 관계 회복도 어려운 문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오랜 제국건설과 식민지 경영의 역사를 가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는 과거처럼 제2차 대전 종결과 더불어 이제 식민지 경영은 그만두고 미국의 후원 하에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왔지만, 서구 문명의 본산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을뿐더러 자신이 누려온 지위를 미국에 빼앗기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젊은 미국’과는 달리 이미 식민지 경영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 ‘늙은 유럽’의 정서 속에서는 전쟁을 통한 평화, 무력을 통한 테러리즘 극복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깔려있었다.²⁶⁾ 동유럽으로 유럽연합을 회원국가를 확장하면 유로화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고, 미국이 설사 중동 석유를 어느 정도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큰 경제적 재앙을 가져다 줄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네오콘은 이제 프랑스까지 적대시할 정도로 이미 너무 멀리 나갔다.

이들은 자신이 자의적으로 규정한 악마와 싸우느라 그들이 이미 스스로 악마화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다가, 자신이 전체주의적 방식으로 자유를 옹호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말로는 나치의 학살을 증오하고 있으나 자신들이 이미 나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죽이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듯이 이들도 자신이 벌인 전쟁에서 수 많은 죄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책만 읽다가 세상물정 모른채 기사임을 자처한 동키호테는 기껏 여관주인, 수도원 수사(修士), 양치기 등만 희생양으로 만드는데 그쳤지만,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여 세계의 잠재적 경쟁자들을 복종시키려하는 이들 네오콘 지식인들의 무모한 이상주의와 잘못된 신념은 수만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위한 ‘영구혁명’도 위험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자유’와 ‘영구평화’를 명분으로 한 ‘영구전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7. 한반도와 네오콘

네오콘의 세계전략 구상이 현실화된 이번의 이라크 전쟁은 한국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즉 냉전시대의 미국의 세계 개입 전략을 집약한 애치슨의 NSC-68의 첫 시험대가 바로 한국이었듯이 네오콘 주도의 부시 행정부의 2002년 새 국방전략, 즉 새로운 세계 개입 전략의 실험장이 바로 이라크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전쟁 모두 ‘자유’의 십자군

26) *New York Times*, January 31, 2003.

전쟁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제2차대전 종전, 공산주의의 붕괴라는 세계 질서의 전환기 국면에 미국이 기존의 세계의 헤게모니를 지속시키고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개입했던 전쟁들이다. 물론 의도가 어쨌든 미국은 한국과 이라크에 어느정도의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비용은 너무 컸다. 한반도에서는 전쟁으로 약 300만의 군인과 민간인이 죽고 수만의 이산가족이 발생했으며, 분단, 군사대결이라는 아편중독증에 걸린 뒤 지난 50년 동안 근원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오직 새 아편 갖다주는데만 신경을 쓴 호된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다. 이라크에서는 지난 1990년대의 경제봉쇄로 약 50만의 민간인이, 그리고 이번 전쟁으로 최소한 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이라크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이라크 사람들이 후세인이라는 독재자를 지지한 것도 결국은 20세기 이래 영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문명의 이라크 지배에 대한 저항감, 걸프전의 피해와 미국의 이라크 경제봉쇄의 결과이듯이 북의 김정일 정권을 지탱시켜준 큰 명분 역시 한국전쟁의 피해, 미군의 남한 주둔, 경제봉쇄 등 체제의 고립과 위기의식이었다. 그런데 이들 '악의 축'이 사실상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한 반영이자 모순의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과격한 방식으로 온 세계의 문명화, 미국화, 시장화를 추구하는 네오콘은 이들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독재자들이나 감히 미국주도의 시장경제를 거부하는 '악마'들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북이 아무리 핵개발이 방어용이라고 주장해도 시장경제를 거부하고 미국에게 강한 적의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예방공격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네오콘이 이러한 안보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의 체제생존은 보장받을 수 없고, 전쟁을 통한 북의 붕괴는 우리 민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네오콘이 주도하는 미국이 후세인이라는 '악마'를 제거하고 이라크에 미국의 중동진지, 나아가 세계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이라크 민간인의 목숨을 앗은 것에 대해 전혀 죄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듯이, 한반도에서 '악마'를 제거하고 중국과 일본을 미국의 확실한 통제하에 두기 위해서 한국전쟁 당시처럼 이북 지역은 물론 이남 지역까지 무차별적인 폭격을 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전쟁 때는 그래도 핵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 내부의 견제가 있었지만, 이제 미국 내에는 그러한 견제세력이 없다. 그들은 북에 대한 정밀 집중타격의 여파로 남북 민간인의 수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도 북의 '해방'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말할 것이다. 네오콘의 전략적 목표는 북한의 붕괴 즉 체제전환인데, 일단 유사시 북의 예상되는 보복공격을 피하기 위해 미군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시키고 있다.²⁷⁾ 백보양보해서 북한이 '불량국가'라는 네오콘의 규정에 우리가 어느정도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현재 네오콘 식으로 불량국가를 전환시키는 전략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뿐더러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사람은 '정신감정' 대상이다.

네오콘은 사실 후세인 하의 이라크가 미국의 안보에 급박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북핵이 미국인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세계를 완벽하게 미국의 패권 하에 두는 로마 식의 제국 건설 전략 하에서는 자신을 반대하거나 적의를 품고 있는, 저 집구석 잘 안보이는 곳에서 왔다갔다하는 쥐새끼 한 마리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게 되어 있다. '죄 없는 쥐'는 골리앗의 영광과 위세를 위해서 불행하게도 '악마'로 지목된 다음 "미안하지만" 죽어 주어야 한다. 세계를 그들이 말하는 자유와 시장경제의 원칙이 일관되게 관철되는 '무균질'의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잠재적 반대자들도 '적극적 방어'라는 명분 하에 공격 대상으로 포함된다. 여기서 '우방'인 한국의 엘리트들이 자기 국민들 입을 피해를 각오하고서 골리앗의 큰 뜻에 충성을 맹세한다면 문제는 더욱 쉬워진다. 미국은 이라크와 달리 한반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미군을 지상 전투에 투입하는 일은 피할 것이므로 쥐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수류탄까지 동원하는 전쟁에서 미국이 잃을 것은 국제적 지지상실과 체면 훼손 정도밖에 없을 것이기

27) Ted Galen Carpenter, "Are We Headed for War with North Korea?", June 23, 2003 (*Asia Times*, June 12, 2003)

때문이다.

손에 칼 들었다고 그것을 마구 휘두르는 성질 고약한 골리앗 앞에서 ‘돌맹이도 손에 쥐지 못한’ 다윗 형제가 취할 방도는 무엇인가? ‘악마’로 지목된 형제 다윗에게 납작 엎드려 싹싹 빌라고 권유하면서 같이 엎드릴 것인가? 아니면 항복하는 척 하면서 일단 서슬 시퍼런 칼날은 피하되 살길을 도모할 것인가? 납작 엎드려 빌어서 목숨을 부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아마 그렇게 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작년 전쟁 직전 후세인이 그러했듯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온갖 공식 비공식 라인을 다 동원해서 부시 행정부 및 네오콘 측과 접촉을 하고, 전쟁만 피할 수 있다면 원하는 것 모든 것 다 들어주겠다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결국 그들의 공격 계획을 변경시키지 못했다면, 납작 엎드려 빌면서 골리앗이 하지는대로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터이다. 골리앗의 사나운 성질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억제하는 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오랜 세월 강자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온 사람의 큰 병폐는 자신의 힘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상대의 약점과 실상을 보지 못한다는 데 있다. 네오콘의 논리와 전략은 그 행동의 결과 즉 이라크 전쟁에 의해 이미 군사, 도덕, 정치적으로 파탄상태에 직면했다. 네오콘의 위세만이 현실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실책과 위선과 국제적 지지상실도 현실이다. 이라크 불법점령을 ‘해방’이라고 보지 않고, 미국을 국제사회라고 말하지 않고, 네오콘을 곧 미국이라고 말하지 말고, 파시즘을 자유민주주의라고 강변하지 않는다면 이미 반은 된 것이다.